

일본 고유의 커피문화, 깃사텐(喫茶店)의 매력

22학번 김오연 / 24학번 신오우 / 24학번 변오호

☘ 들어가며

깃사텐(喫茶店)은 1888년 일본 도쿄(東京)의 우에노쿠로몬초(上野黒門町)에서 문을 연 가히차칸(可否茶館)을 최초로 시작되었다. 깃사텐은 일본 고유의 커피 문화로 19세기 초반, 브라질과의 교류를 통해 대량의 원두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본격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를 토대로 깃사텐은 전후 1960년대에 ‘깃사텐 붐’을 일으켜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음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사 메뉴도 갖추며 많은 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아 왔다.

현재 일본의 모든 깃사텐 점포 수는 2022년 기준 58,699개(출처:全日本コーヒー協会)이다. 이는 같은 해 일본의 프랜차이즈 카페 수가 6,619개인 것을(출처:一般社団法人日本フランチャイズチェーン協会) 고려하면 약 9배에 달하는 수이다. 또한 같은 해 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 수가 29,499개임을 고려하였을 때(출처:통계청 프랜차이즈 커피/비알콜음료 점포 수 통계 결과) 수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는 한국과 비교해 보아도 일본에는 그의 2배에 달하는 수의 깃사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현지 답사를 통해 깃사텐만의 다양한 매력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면 일본에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직까지 깃사텐을 방문하는지 조사해보고자 한다.

☕ 세월이 느껴지는 레트로 인테리어

고히노샤포(珈琲のシャポ-)는 1967년부터 운영을 이어온 깃사텐이다. 가게에 방문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가게 내부의 인테리어였다. 깃사텐 내부는 주로 빨간색과 갈색 같은 따뜻한 색조의 복고풍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다. 가족 소파와 나무 테이블은 아늑함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깃사텐의 레트로한 가구의 색채와 촉감들이 손님들에게 기존의 프랜차이즈 카페와는 색다른 감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이후 다른 깃사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빈티지한 인테리어, 레트로한 분위기를 깃사텐의 방문 이유, 매력으로 꼽는 답변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이 이러한 깃사텐의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손님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깃사텐 대부분은 60년대~80년대에 개업하여 그 당시의 인테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가게와 함께 나이들어온 인테리어가 최근 등장하는 레트로풍 카페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특유의 고풍스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며, 깃사텐의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사진 1. 붉은 색감의 소파와 목재 가구
출처:2024.08.25 / 필자 촬영



사진 2.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로 꾸며진 깃사텐의 모습
출처:2024.08.25 / 필자 촬영

☕ 커피와 함께 즐기는 흡연

깃사텐을 방문하며 느꼈던 특색 중 하나는 항상 테이블에 재떨이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과거 일본에서 비행기, 버스, 음식점 내에서의 흡연은 일반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점차 흡연의 문 제점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금연법이 시행되어 대부분의 식당, 술집에서 흡연이 불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영업을 이어오던 깃사텐의 경우에는 흡연이 자유로운 곳들이 많다. 흡연자들의 경우, 식사를 마치거나 커피를 마신 후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학저널 시앙스에비(Science-et-vie)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덴마크와 노르웨이 연구진들이 진행한 담배와 커피 소비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 결과 담배 연기가 카페인의 신진 대사를 촉진시키고 카페인 섭취가 흡연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흡연자들이 커피와 담배를 함께 자주 즐긴다고 한다. 또한, 식사 후 흡연 할 때에 몸이 담배 연기를 많이 흡수하는데, 이때 담배의 단맛을 내는 페릴라르틴 성분도 많이 들어와 평소보다 담배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깃사텐은 프랜차이즈 카페나 일반 식당과 다르게 특별한 장소 이동 없이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흡연을 즐길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흡연자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함을 제공한다.

실제로 답사를 하며 방문했던 깃사텐 모두 흡연이 가능했다. 다만, 흡연 문화에 다소 거부감이 있는 손님들을 배려하여 우리가 방문했던 깃사텐인 가제마치는 1층은 흡연식, 2층은 금연식으로 구분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고, 깃사 베니스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흡연을 허용하고 있었다.

답사를 하며 성별이나 나이를 떠나 대부분의 손님들이 커피와 함께 흡연을 즐기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스루바미 커피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부 손님들이 내부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점을 깃사텐의 장점이자 매력이라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진 2. 흡연과 커피를 같이 즐기는 모습
출처:PhotoAC

☕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식사와 커피

화양식(和洋食)이란 서양음식을 일본식으로 리뉴얼한 음식을 가르키는 말로 쓰인다. 1960년대 깃사텐 붐(喫茶店ブーム)과 함께 일본에는 수많은 깃사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로 경쟁하던 깃사텐들은 다른 가게와의 차별성을 가지려고 노력하였고, 커피뿐만이 아닌 식사 메뉴도 같이 판매하는 가게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외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였다는 점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판매하는 대부분의 식사 메뉴들은 나폴리탄이나, 오므라이스, 카레와 같이 서양음식을 기반으로한 화양식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이 깃사텐의 특징 중 하나로 굳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본의 주식회사 리크루트의 외식 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 핫 페퍼 구르메 외식 총연(ホットペッパーグルメ外食総研)이 2022년에 ‘깃사텐에서 먹고 싶은 메뉴’라는 주제로 인터넷을 통해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깃사텐에 존재하는 화양식을 포함한 다양한 식사 메뉴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나폴리탄과 샌드위치류, 오므라이스와 카레 등 주로 화양식에 해당하는 메뉴가 인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깃사텐에서 판매하는 식서류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로는 깃사텐이라는 공간의 특징과도 연관이 있다. 바로 깃사텐에서는 커피와 식사 담배 이 3가지 요소를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처럼 밥 따로 카페 따로 흡연 따로 이동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앉은 그 자리에서 밥과 커피, 흡연 삼위일체를 동시에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비흡연자일지라도 밥과 커피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깃사텐 이외에는 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깃사텐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한다.

우리가 다녀온 깃사텐인 가제마치(風街珈琲店)는 화양식을 포함한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메뉴와 함께 커피와 흡연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다른 깃사텐은 후지(ふじ)에서는 돈가스나 나폴리탄을 합친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이며 마찬가지로 한 공간에서 식사와 커피 흡연 모두 해결 가능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4. 깃사텐의 대표적인 메뉴 나폴리탄
출처:2024.08.25 / 필자 촬영



사진 5. 다양한 식사가 소개 되어있는 메뉴
출처:2024.08.25 / 필자 촬영

♡ 여유를 느끼는 공간, 깃사텐

카멜(キャメル)은 1978년에 영업을 개시한 가게이다. 인터뷰를 통해 점장님의 가게 운영철학을 들여볼 수 있었다. 점장님께서 본인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도 커피를 좋아하는 손님이 방문하고, 자신이 만든 커피를 내주었을때 손님이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카멜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좋은 만남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점장님에게 카멜이라는 가게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는 질문에는 “일이지만, 단순히 커피를 파는 일만이 아니라 손님들과 대화하고, 손님들에게 자신의 좋아하는 커피를 제공해주고, 손님들은 커피를 즐기며 대화로 행복해한다. 나와 손님들 서로 좋은 일이다” 라고 답하셨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깃사텐에 방문해 점장님과 이야기하는 손님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식사하고 커피, 그리고 흡연이 모두 한 장소에서 해결가능하다는 깃사텐의 장점으로 인해 손님들은 좀 더 깃사텐에 오래 머물게 된다. 이 시간동안 손님들은 편하게 휴식하면서, 여유를 즐기게 된다. 커피 한잔과 담배 한대를 즐기면서 나오게 되는 짧은 진솔한 대화들이, 손님들을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로부터 해소시켜준다. 물론 같이 쉬러 온 일행이 있다면 일행과 대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점장님과 조그마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유를 가져다주는 것이다.

결국 손님들에게 깃사텐은 바쁜 현대사회 속 여유를 가져다주는 휴식의 장소로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인테리어부터, 식사, 커피, 흡연 이 모든 매력요소가 한자리에 앉아 오랫동안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사진 6. 식사와 커피, 흡연을 여유롭게 즐기는 공간
출처:2024.08.27 / 필자 촬영

☘ 마치며

후쿠오카에서 4박 5일동안 일본 고유의 커피문화인 깃사텐의 다양한 매력을 알아

보았다. 깃사텐의 매력으로는 세월이 담겨있는 레트로한 인테리어, 커피를 마시며 흡

연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었

다. 인테리어와 커피, 커피와 흡연, 흡연과 식사 사이의 관계로 보아 깃사텐은 이러

한 다양한 매력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여유’라는 키워드 아래 복합적

으로 얹혀있는 휴식의 장소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일본에 많은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겨났지만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느끼기 힘

든 위와 같은 매력들이 손님들이 깃사텐에 더욱 오래 머물도록 해주는 요소라고 생각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적 특징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존재하는 현대 사

회에서도 깃사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임을 확인하였다.